

# 포스트 시즌 향한 중위권 팀들 경쟁 '치열'

### SK·KIA·LG 로 좁혀진 가을야구

지난주(6~11일)에도 2016시즌 포스트 시즌을 향한 중위권 팀들의 뜨거운 순위경쟁이 이어졌다.

그 중 LG 트윈스의 상승세가 매서웠다. LG는 지난주 6경기에서 5승1무(승률 0.833)를 기록하며 KIA 타이거즈(62승1무 65패)와 함께 공동 5위 자리에 올랐다. 12일 현재 4위 SK 와이번스의 승차는 0.5경기차다.

LG의 상승세는 마운드와 타선의 힘이 컸다. 6경기 평균자책점이 3.83으로 2위, 팀 타율은 0.351로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좋았다.

류제국과 헨리 소사, 그리고 불펜에서 임시 선발로 보직을 맡은 봉중근이 깜짝 활약을 하며 상대 타선을 무력화시켰다. 불펜진도 힘을 더했다.

특히 봉중근은 지난 8일 잠실 넥센전에서 5이닝 2피안타 3탈삼진 3사구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1944 민에 선발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지만 기대 이상의 호투로 LG 마운드를 지켜냈다. LG는 이 기세를 몰아 이번주 2위 NC 다이노스(70승2무49패)와 만난다.

KIA, 삼성 라이온즈(8위·56승 무패)와 연이어 경기를 갖는다.

LG에 이번주는 중요하다.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4위 자리 탈환과 함께 포스트시즌을 향한 꿈을 이어갈 수 있다.

삼성도 좋은 흐름이다. 지난 주말 6경기

에서 4승2패(승률 0.667)를 거뒀다. 무엇보다 타선의 힘이 컸다. 최형우가 타율 0.455를 기록하며 주간 타율 3위에 올랐고 타격왕 부문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자욱(타율 0.400)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이승엽과 박한아가 나란히 2000 안타 기록을 세우면서 힘을 더했다. 이는 KBO리그 역대 8, 9번째 기록이다.

특히 이승엽은 한일통산 600홈런에 단 1개만을 남겨 두고 있어 이번주 800홈런 달성이 유력하다.

삼성은 한화 이글스(7위·58승3무66패), SK, LG를 차례대로 상대한다.

SK와 한화의 상승세도 돋보인다. 두 팀은 지난 주말 나란히 4승2패(승률 0.667)를 거뒀다.

타선과 마운드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순위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두산(82승1무46패)은 부동의 1위다. 지난주 3승3패(승률 0.500)를 거뒀다. NC에게 7.5경기 앞서 있다.

NC 역시 두산과 마찬가지로 승률 5할(3승3패)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에릭 테임즈는 지난 9일 광주 KIA전에서 2년 연속 40홈런 고지에 올라서며 이 부문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2위 최정(SK)과는 3개차다.

반면 3위 넥센 히어로즈는 부진했다. 넥센은 1승2패(승률 0.167)로 흔들리는 모습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 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회말 1사 2, 3루 상황 LG 양석환의 안타 때 득점한 박용택이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을 보였다. 이로 인해 4위 SK와의 승차는 7.5경기로 좁혀졌다.

마운드와 타선에서의 부진이 빠졌다. 넥센은 지난주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84로 10위, 팀 타율도 0.253으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넥센은 이번주 KIA, kt 위즈(10위·48승 무패), 롯데 자이언츠(9위·56승70패)를 만난다.

무엇보다 이번주 역시 포스트 진출의 유

리한 고지를 향한 SK, KIA, LG 한화, 삼성의 치열한 중위권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4위 SK부터 8위 삼성의 승차는 불과 5경기차 연승에 따라 충분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후반기에 선수들의 체력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 10월 역대 최고 상금·최대 규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개최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양궁이 오는 10월 역대 최고 상금이 걸린 최대 규모의 국내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양궁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6'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규모와 상금 면에서 기존 대회의 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리우올림픽에서 양궁 종목에 걸린 금메달 4개를 싹쓸이한 구본찬(현대체력), 김우진(청주시청), 이승원(코오롱·이상 남자), 장혜진(LH),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광주여대·이상 여자) 등이 총 출격하는 가운데 국내 남녀 80명씩 모두 160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일반부 뿐 아니라 대학부와 고등부 선수들도 참가한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한국 양궁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준우승 5000만원, 3위 2500만원 등 남녀부 합계 4억4400만원의 총 상금이 준비돼 있다.

/김민근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리그 클래식·챌린지 선수들 대상 도핑테스트 전원 음성 판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K리그 클래식 및 챌린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핑테스트에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KADA는 클래식 및 챌린지 전 구단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진행했다.

경기 당일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선수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고, 채취된 시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분석했다.

23개 구단 68명 선수가 대상자로 선정돼 테스트가 진행됐고, 양성 판정은 하나도 없었다.

KADA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잔여일정 기간과 시즌 종료 후에도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6시즌부터 K리그 도핑테스트는 KADA에서 운영한다.

/김민근기자

## “떨리기도 하고,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잘 안돼기도 하네요”

### 젝스키스, 해체 16년만에 '옐로우노트' 콘서트 열어

그들 '젝스키스'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2000년 해체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

지난 4일 MBC TV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한젝스키스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후 10일~11일 양일 간 개최되는 콘서트 '옐로우 노트(YELLOW NOTE)'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콘서트에 앞서 만난젝스키스 멤버들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도 하다”(김재덕)며 여전히 알뜰할만한 마음을 드러냈다.

“젝스키스로 인사를 드리는 게 해체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서 그때(해체 당시) 기억도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은지원)

16년 만에 열리는 이번 콘서트 '옐로우 노트'는젝스키스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들은 해체 직전 '블루 노트'라는 앨범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끝냈다. '옐로우 노트'는 '블루 노트'의 슬픈 기억을 지우고

노란색으로 대표되는 팬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젝스키스의 시작을 뜻하는 이름이다.

그 시작의 첫날이었던 지난 10일 공연은 세월의 흐름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복을 입고 따라다니던”(은지원) 팬들은 이제 쉽게 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어른이 됐고, 멤버들 역시 “내 체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김재덕) 한 탄환 만큼 애를 먹는 나이가 됐다. 장수원은 공연 이후 갑자기 갑자기 걸렸다.

“다함께 부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세트리스트를 뽑아 봤어요. 모든 곡마다 활동 당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옛날 생각이 많이 하면서 공연했습니다.”(은지원)

“팬들은 얼마나 이 무대를 기다렸어요. 어제 보면 합성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헉!'하는 친구들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저희도 만만치 않게 그랬거든요. 오늘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곧 무대에 올라갈 텐데, 또 꿈같은 것 같아요.”(강성훈)

젝스키스는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신곡을 발표하고 전성기 못지않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일단 신곡으로 활동 할 계획이

예요. 정말 오랜만에 음악 방송에 나가서 이표 달고 리하설도 해보고 싶어요. MBC TV '주간 아이돌'에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올해가 후딱 지나갈 거고, 2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기념 콘서트도 할 예정입니다.”(은지원)

/뉴시스

## 여자프로농구, 2016~2017시즌 경기 일정 확정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여자프로농구 2016~2017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다음달 29일 용인삼나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우리은행 위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5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정규리그는 10월29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경기가 진행된다.

6개 팀이 팀당 35경기씩 총 105경기를 치른다.

플레이오프는 내년 3월10일부터 14일까지 3선2승제로 열린다. 3월16일부터 24일까지 5선3승제로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된다. 경기 시간은 평일 저녁 7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5시다. 지난 시즌까지 오후 2시였던 주말 및 공휴일 경기 시간이 변경됐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